

제 198 호

연중 제23주일

1976. 9. 5.

숲 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당신은 병어리...!?

이 증 원 신부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을 귀먹은 반병어리의 귓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반병어리의 혀에 대고 "에파타! (열려라)"하고 말씀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기적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흔히 요사이를 일컬어 「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남북 대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와의 대화,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사제(師弟)지간의 대화 등 대화가 필요함을 항상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대화를 생각한 나머지 「이야기 하는 것」만이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듣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하나의 입과 두개의 귀를 주신 것도 '먼저 잘 듣고 말올라되 말하기 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며 말의 보이지 않는 뜻을 이해 못함은 물론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서로간의 이해가 적어지며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불화(不和), 오해, 어리석음에 싸이게 됩니다.

기도를 흔히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의 대화에 있어서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느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되어 무미건조, 분심, 잡념, 기계적인 기도가 되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마음속의 분심을 없애고 주님과 마주 앉아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의 대화는 참다운 신심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실천한 일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하느님의 지시를 받는 참다운 대화가 기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고 귀가 먹은 반병어리를 고치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집안 형제와 친척과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그와 일치할 수 있음 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야기를 하려는 욕심때문에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혀가 있어도 형제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반병어리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때와 장소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며 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느님은 우리 귀와 목소리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마음의 귀가 막힌 말 못하는 반병어리입니다. 저에게 열려라! 하는 말씀과 당신의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리 창인동 성당 보좌 신부)

□ **시대의 징표** □



추석절(秋夕節)

- 추석 성묘 귀한 손님, 同胞愛로 맞이하자.
- 공향엔 연일 감격의 눈물.
- 추석 성묘단 제5진 770명 또 입국.

우리의 고유한 명절 중추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한 해의 결실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조상의 묘를 찾는 아름다운 명절이 바로 추석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추석절이 다가오면 특별비상이 걸리는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도 독질이라도 해야 하는 이 비극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그런가하면 형제 친척들과 남북으로 갈리어 조상의 성묘를 못하는 서글픔과 안타까움으로 발을 구르기도 한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수재(水災)의 상처로 밝은 달이 뿌연게 보이는 형제들도 있을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가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불행한 형제들을 돕자고 기도는 잘한다. 그러면서도 제 수중에 꼭꼭 감추어둔 돈주머니는 오그려쥐기가 일쑤이다.

크리스찬들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제 부모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추석절이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제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숲 정이 산책



돌아가신분을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3.1사건 공판 방청기 ⑭

정 승 현 신부

1심 공판의 마지막 날.

그들은 너털너털해진 방청권을 회수했다 방청하고 싶어도 도리가 없었던 많은 신자들을 대신해서 소위 3.1사건 공판의 증인(eye-witness)으로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웠으나 얼마나 신자들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다

10시 10분전. 구속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간다. 모두들 박수로 격려했다. 삼베웃을 입은 함석헌옹의 모습이 이채롭다.

방청석에는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윤공회 대주교님, 지학순 주교님이 보인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다.

변호인석은 텅 비어있다. 아는 바와 같이 8월 3일 변 호인단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불충분으로 재판부를 기 피한 것이다.

공판은 판사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되었다. (문정현 신부 님에 대해서만 간단히 적었다.)

신부님은 작년 9월에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과 '경과 보고'를 유인물로 배포하고 이를 기도회에서 낭독함으로써 긴급조치법을 위반하였고 금년 2월 16일 전주에서 열 린 기도회에서 김지하의 어머니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호 소문에 기초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낭독케함으로써 긴급 조치 9호를 위반하였으며, 3월 1일 평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도회에서 동 호소문과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죄목이다.

피고인들은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인 자연법(自然法) 상의 저항권(抵抗權)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행 위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저항권이 용납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다.

문정현 신부님은 5년 징역에 5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 았다. 어떠한 심경이실까 헤아려보는 마음이 착잡하 다.

180일의 구속기간도 형량에 계산 된다 한다. 반년가까 운 시간이 지나갔다. 연초록의 새잎들이 이제 겨우살이 를 준비하고 있다. 누렇게 익어가는 논, 사과 배는 익어 가고, 딸기를 비롯하여 도마도 참외 수박 포도들이 입맛 을 돋우었다. 똥단지같은 소리지만 신부님과 함께 포도 라도 실컷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잃지 않으 신 그 검은 얼굴의 미소를 자유롭게 마주 대하고 싶다.

신부님의 의로움이-익인(義人)이 당하는 표현키 어려운 그 의로움이-자꾸 마음에 밟힌다.

주여, 우리의 선구자들 곁에 항상 같이 계셔주시시오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인권분과 위원장)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요거리통, 동아여관 앞

전화 6094

조국과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한 합동미사

조국과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 한 기도회가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8월 30일 오후 8시부터 전주 중앙성당에서 있었다.

김제덕 주교님이 주례한 이 미사에는 28명의 교구사제 들과 50여명의 수녀, 500여명의 평신도들이 참석했다.

미사 시작 전에 정승현 신부는 8월 28일에 있었던 선 고공판 참관보고를 했다. 이어 김 주교님은 미사의 지향 을 -"선고공판에 대해 기대는 갖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기적이 있거나 없겠는가는 한 가닥의 무엇이 있었지만 아주 기대한바는 아닙니다. 미사 중에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느님 나라가 이 땅 에 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옥에 있는 형제들이 실망하 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라고 침 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강론에서 김주교님은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삶이 육 (肉)적인 것에 그치고 영(靈)적인 것에 못미칠을 일케 위 주시는 하느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시며 "그 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자"고 당부하셨다.

강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 그리스도의 생활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데서 해방되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 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을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예지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질인 음식이 육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지만, 하느님의 예지의 섭취는 인 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하느님으로 동화되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7권 10장 참조)

사도 바울로도 내안에 내가 살지않고 내안에 그리스도 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이번 재판은 공정했습니다(?) 그들의 고생이 가치있 는 것이라고 예측할만한 법정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리 짜고 한 것같은 점이 적연치 않기는 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한 산 신앙 인이요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도 5년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가기 위해 서 신부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안에 하느님 의 뜻을 펴도록 기도합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진리(정의, 사랑, 평화) 앞에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로 영원 히 살도록 노력합니다"(文責在記)

□양서 안내□

解 放 神 學

-마태오 복음에서 본

값 1,200원 (216페이지)

日本 上智大學 教授 니콜라스 神父 (Rev. Adolfo Nicolas, S.J)께서 지난 6월 전주교구 사제 연수회 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역에는 明洞의 강우일 신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세스 神父 지도 M.B.W 研修會 講義錄(값1,200원)

■發 行 : 全州教區 司牧局(전주 서노송동 560-6)

□복자성월□

이 고 장 에 의 천 주 교 포 교

- 그 유래와 특징

김 영 구 신부

한반도에 가톨릭이 이승훈을 통하여 전래되었다(1784년). 그 뒤 이 고장에도 유허검(柳恒儉)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호남일대 교회의 초석으로 다져졌다. 더 우기 한국 가톨릭의 첫 순교자 윤지충(尹持忠, 바오로)과 권상연(權尙然, 야고버) 두 대의종 형제가 흘린 거룩한 피(血洗)는 한국을 천주께 축별(祝別)한 땅이 되게함을 비 롯하여 홀로 호남 교회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여러가지 영예와 자랑거리를 갖게 했다.

그 자랑거리는 다섯가지를 손꼽을 수 있다.

- ① 복음의 씨를 이 고장 사람의 손으로 들여온 일.
- ② 한국 교회의 첫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교 사실.
- ③ 한국 교회사에 처음인 동정부부.
- ④ 한국 교회사에서 그 유례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한 어린 아가씨의 영웅적인 순교 사실.
- ⑤ 한국 교회의 맨 처음 방인 교구(邦人敎區).

(이상의 특색맺거지를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전주 근처, 약 30리 서북쪽으로 초남(初南, 후에 가남이라 부름)이라는 아담한 부락에 고려시대부터 누대로 무반(武班)으로 이름이 높았던 문화유씨(文化柳氏)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고려때 방직(邦直)으로 사람이 8도 부도승(副都承)으로 전주에 도임하였던바, 방직의 10여대 후손에 유허검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격과 학문으로 호남일대에 떨치던 선비였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호남유일의 토호가 되게하여 그 서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에 올라가 권일신(權日身)의 문재이 되어 있던중 그의 감화를 받아 이승훈에게 아우구스머노라는 교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조선교회 설립당시의 주동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후에는 가성직단(假聖職團)의 탁덕(鐸德, 신부)까지 되었다. 벼슬에 뜻을 두고 상경했던 유허검은 호남지방의 전교를 담당한 호남의 첫사도가 되어 내려왔다.

그는 먼저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교하여 감화시켰고, 심지어 노복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전주, 고산, 금산, 영광 등지에까지 복음의 씨를 골고루 뿌렸다. 그는 자신의 사랑방을 전도실로 마련하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문교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영세시킴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어 전교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의 행적을 통해서 이 새 종교는 과거에 희미하게 믿어오던 하느님을 바르게 가르쳐주었다.

항검은 호남의 사도직을 철저히 수행하는 동시에, 때때로 친리질인 한양을 내왕하면서 중앙의 요인들과 교회발전에 대한 연락은 물론, 전교 신부님을 청해오기 위하여 북경으로 보내는 비밀공작의 역할을 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출(辨出)하는데 앞장서는 등 물심양면으로 성과 열을 다하여 이 고장에서 천주교 포교의 밑거름이 되었다.

요심이 (162) 김병오

국가의 유공자는 생활보장을 해준다지?

그래

5년 동안 국가에서 침식을 제공받게 된 신부님도 있지

그분은 만나기도 힘든단다

굉장히 훌륭한 신부인가 보구나

그분은 경호원과 비서도 많았구나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할인 우대★

혹·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 2 8 9

김 금 준 (메레사)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 - 6 2 1 9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모이세)

금암동 ③5614 군산 3032

다가동 ④4342 부안 736

전 동 ②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④4007, ②7007

☆ 이(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수석(水石) 치과 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딩)

전주시 중앙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 6 6 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공지사항※

1. 추석절 합동미사 봉헌 ① 추석절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부모형제를 위한 합동미사를 봉헌합니다. ② 합동미사 예물은 전액이 특별목적 (순교자 기념관건축 등)에 사용됩니다.
2. 두 차례에 걸친 수재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크리스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3. 탁아소 대지 매입을 위한 바자회, 준비관계로 무기연기.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4. 신부 인사 이동(팔호안은 전임지) 한 봉성 신부...해성 중 ② 중교감 서리(중앙 보좌), 중고등 연합회 지도신부 결임 이 중원신부...중앙보좌(이리 창인동 보좌)
5. 중고등 연합회 제 2차 회장단 회의(다음주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참가비 300원)
6. 김종택 부주교·이대권 신부, 제41회 국제 성체대회(미국)에 다녀 오셨음.
7. 조국을 위한 신·교구 합동 월요 기도회 (6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중양) 주 임 신부 이 대 권
전화 ③3651 수석보좌 신부 한 봉 성
③3874 사 도 회 장 이 상 용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8일(수) 본당-오전 6시, 저녁 8시 교회 묘지-오전 10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4. 5분교리 개강: 매 미사후
5. 예비자 교리 개강: 12일(다음주)부터
※ 중·고등학생(토-오후 7시반, 주일-오전 8시), 일반(주일-10시 미사후, 화-목-오전 10시 혹은 오후 8시), 노인(주일-10시 미사후, 화-오전 10시)
6. 꾸리아: 12일(일) 오후 2시.

(노송동) 주 임 신부 공 아 영
전화 ②7032 사 도 회 장 조 해 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추석(8일) 합동 위령미사 봉헌 <봉헌 봉투이용 ※ 미사시간-아침 6시, 저녁 8시>
3. 노송 성우회 발족: 12일(일) 공식 미사후
◎ 뜻있는 남성 교형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5. 본당 주일학교 개학: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들을 꼭 보내주세요. 네?

(덕진) 주 임 신부 박 종 근
전화 ③2182 사 도 회 장 김 용 환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식 미사후(사도회 임원, 공소회장단, 구역회장, 반장님의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8일 오후 8시
3. 신용조합 임원회-5일, 월례회-12일 공식 미사후
4. 성당 건립 성금 신임: 아직 미신입자는 금주안으로 (12일) 신입해 주세요. ▣ <전당리>: 문제준-10만원, 김지환, 문제원, 전윤복-각 30,000원 유현준, 송홍의-각 25,000원, 김길수, 송시문, 여마지-각 20,000원, 최상근-15,000원, 허정애, 유기중, 남규철, 송준의, 최금래, 서기준-10,000원, 유학중 배부만, 문광호, 방정호-각 50,000원, 최복래 3,000원 이산래, 이말래, 문정환, 김옥이, 김옥남-각 2,000원 <미산리>: 김배진-25,000원, 광일봉, 노남식, 원병수-각 20,000원, 이형노-15,000원, 이주섭-10,000원

김종권, 이양범, 김동춘-각 5,000원, 김동호-3,000원
순순례-1,000원 계: 537,500 누계: 2,700,5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 임 신부 김 종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 ※ 9월은 복자성월! 매일 미사후 성월 기도 드림.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임원과 각 구역장님 각 신심단체 간부님은 꼭 참석해 주세요.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각 가정은 먼저가신 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3. 복자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감사 합니다-성당도장 및 기념실 공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직 신임 안하신 분은 속히 신임 하시기 바랍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 임 신부 오 현 택
사 도 회 장 박 장 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구역장, 반장님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추석 합동 위령미사에 빠짐없이 봉헌합니다.
※ 접수 마감-오늘 (주일) 저녁미사때까지.
3. 9월은 복자성월: 매일 미사후 합동으로 성월기도 드림. ◎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기부금 미납하신 가정은 많은 협조 제발 부탁드립니다.
5. 반회합: 14일(화)-5반, 15일(수)-6반, 16일(목)-7반, 17일(금)-8반.
6. 도장 공사 현금 신입자 <제4반>: 전병주(1만원), 장영권(5천원), 이장열(3천원), 김강용, 김귀순, 송대준, 서정임, 이완주, 이삼래, 정성남(각 2천원), 은은희, 백용금, 정인택, 한동기(각 1천원)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부 김 함 철
보좌 신부 김 양 윤
사 도 회 장 양 범 모

1.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성화회, 유아 세례: 10시 미사후
3. 성 가정회: 다음주일 나바위 성당에서
4. 예비자 등록 발음-교우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5. ※ 월요일은 신부님과 상담 하는 날 ※
6. 가족끼리 기도 바치기 운동 정려
7. 추석 위령미사(세례별 봉헌): 미사-5시 30분, 10시, 저녁 8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길수 신부 창제류인읍	추석 합동미사 안내	542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대의원회	55,496원
		사도회	28,985원			어머니 월례회	54,445원
		어린이 교리	6,380원			사도회 월례회	9,315원
		복자회	5,310원				
		안나회, 청년회 정기총회	21,336원				
제 2 지구	대운명동 울동동 명동	9월은 교부님 완납의달...	6,54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노 송 동 덕 진 동 자 학 동 서 학 동 전 동	사도회 월례회	88,821원
		사도회, 성심회.	60,070원			★ 축! 성우회 발족	33,230원
		사도회 월례회	29,425원			사도회 확대 회의	15,585원
		사도회, 요셉회, 부녀회	16,245원			사도회 월례회	30,875원
		사도회 월례회, 유아세례식	18,630원			사도회 월례회	21,835원
						사도회, 성화회, 유아세례	100,87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6,665원	제 5·6 지구	무장전남순찰	청년회 월례회	15,230원
		상임 위원회	15,665원			사도회 월례회, 어머니회	9,715원
		자모회 월례회	17,095원			사도회 월례회	32,500원
						꾸리아회, 학생회.	18,230원
						다음주 사도회 월례회	6,335원